

책자형 선거공보

연제구의회의원선거
연제구나선거구(연산2·5동)

무소속

**같이 한 번
웃어봅시다**

**생애 마지막
봉사로
보답하겠습니다**

- 진주농과대학 졸업 | 농학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 공인중개사
- 국가유공자

연제구의원후보

6 **하만성**

번

번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연제구의회의원선거 연제구나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6	무소속	하만성	남	1946.07.08. (79세)	노동	진주농과대학 농화학과(농학사) (현 경상국립대학교)	(전)진양하씨 대중회장 (현) 사)한국성씨 연합회 이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1,296,963	1,296,963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지거부	해군(해병대) 상병(만기전역)	해당없음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16,088	0	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벌금100만원(1994.11.10.)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벌금100만원(1995.01.1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벌금100만원(2004.07.29.)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벌금120만원(2006.01.02.)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벌금100만원(2006.12.06.)
후보자	11,709	0	0	
배우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4,379	0	0	

4. 소명서



같이 한 번 웃어봅시다

김씨 어~ 이사람 리어카 끌고 폐지 줘던 사람 아이가?

박씨 그러네. 이사람 막걸리를 좋아한다던데 대포값이나 됐을까?

김씨 폐지 판 돈은 모두 새마을금고에 차곡차곡 쌓고 대포값은 다른 주머니에서 나왔다고 그래. 그렇게 1년동안 모은 돈이 230만원 넘는다 쿠더만.

박씨 230만원이면 큰 돈이가 작은 돈이가?

김씨 여의도 국개 사람들 같으면 한자리 술값이나 될랑가 모르지만 서민들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지.

박씨 폐지를 얼마나 주워야 그만큼 될랑가?

김씨 리어카 무게를 50Kg으로 친다 쿠더만, 거기에 종이를 가득 얹어가면 100Kg 안팎 4~5천원 받는다고 그래. 그리 치면 5백7~80리어카 쯤 되는가 보네.

박씨 운동삼아 시작 했다던데 골병 들었겠다.

김씨 안그래도 골병이 들었다 쿠더만. 손가락 관절이 아프고 말을 안듣는다고 그래.

박씨 그런데 폐지 줘시로 느끼게 많다쿠더만.

김씨 그게 또 뭐라쿠노.

폐지를 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급이 1천원 쯤 되는것 같더라.

그래서 돈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 그래.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가 노인들이고 장애인들이라는거야.

노약자들이 그렇게라도 움직이니 육체건강, 정신건강에 좋겠더라거야.

그래서 일정한 나이 이상자는 고물상에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노력한 댓가만큼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는거야.

박씨 아주 영똥한 생각은 아닌것 같기도 하네.

김씨 길바닥에 널브러진 일수카드(명함같은거) 줘는 사람 봤지?

그것도 1장에 20원 준다 안쿠나.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쿠더만, 그게 의료비 절약도 되고.

박씨 개병대는 또 뭐한다고 써 봤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진데...

김씨 그게 그래. 청룡부대 1진 소총수로 갔는데 소총수란게 전투를 나갈 때는 대원들보다 몇 발 앞서서 가고 귀대할 때는 또 제일 뒤에서 뒷걸음으로 온다 안쿠나. 선배 전우가 총 맞아서 탄띠로 몸을 묶어 끌고 나오기도 했다쿠더만. 전투부대 소총수로 갔다가 살아서 돌아온걸 보고 사람들이 구사일생이란 말을 많이 했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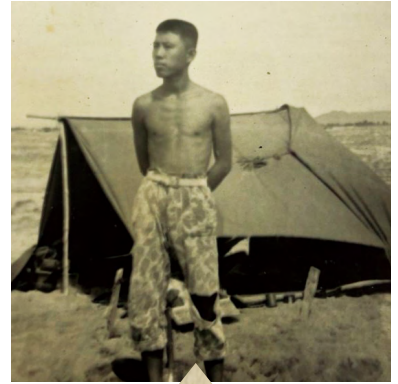
박씨 그 때는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지.

김씨 그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5달러 수준이었고 환율은 255원 정도였다쿠네. 연간 약 27,000원 정도, 한 달 기준 약 2,500원 수준? 그 당시 대만 229달러, 싱가포르 516달러, 홍콩 667달러. 필리핀도 230달러 정도 였다는데 우리는 그 절반 수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지.

박씨 그랬어. 군인은 월남가고 간호사는 독일가서 몸 팔고 돈벌어서 국내로 보냈는데 그게 경제발전의 밑천이었다쿠더마.

김씨 젊은 사람은 컴퓨터도 잘하고 전화기기도 못하는게 없는데...

박씨 매일 컴퓨터 만지고, 네이버로 해피빈인가 뭔가 그걸 2개 받으면 200원이라쿠네. 그럼 네이버(회사)에서도 그만큼 더해 준다쿠고. 그렇게 받아서 불우한 청소년 돕기를 행기 651,900원(4월 말 기준)인디 날짜로 치면 3,260일쯤 되네. 모교에 기부금도 내고, 농사 지을 때 채소도 이웃에 많이 나누고, 누구든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 동네에서 제법 평판이 좋다 그래.



아름다운 약속!

- 1** 전국에서 최우수 구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 매일 아침 집 주변을 쓸고 청소하겠습니다.
- 3** 5동 어린이 놀이터를 주 2회 이상 둘러보고 청소하겠습니다.
- 4** 당선되면 월정수당을 전액 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하고 1년 단위로 그 금액에 +1로 선거구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노을도 아름답다는 말이
있듯이 봉사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무소속 연제구의원후보(연산2·5동)
6 하만성